

2021년 11월 20-21일 주말 예배
광야에서 함께 1. 가나안에서 만나는 광야

가나안에서 만나는 광야

창세기 12장 10절

10.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을 뿐이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두 개의 비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항해’하는 것 같은 인생, 다른 하나는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인생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인생을 항해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인 오늘부터는 광야를 지나며 인생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8번의 말씀을 통해 ‘아름다운 광야’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펼쳐진 광야는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지순례를 하다보면 꼭 거치는 코스 중 하나가 ‘광야 체험’입니다. 그중에 ‘와디 럼’이라는 곳이 있는데, 참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지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지 순례에서 찍었던 아름다운 광경, 사진】

힘들지만 아름다운 광경을 보며 지나가야 하는 곳이 광야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함께 광야의 여정으로 들어가 보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명령을 따라 정착한 곳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하면 우리의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인도하신 곳은 참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성경의 지식을 조금 안다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온 것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앞 창세기 11장 31-32절을 보세요.

31.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32. 데라는 나이가 이백오 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갈대아를 떠나 온 가족을 데리고 정착한 곳이 ‘하란’입니다. 하란이라는 지명이 데라의 아들이자 룻의 아버지인 ‘하란’과 동일한 이름이라 종종 헷갈리기는 하지만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 사람을 보냈던 곳입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친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형이었던 나홀의 손녀입니다. 리브가의 오빠 이름은 ‘라반’이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했던 곳이 바로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가 있던 곳 하란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정착해 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친지들은 익숙한 자신의 문화와 관계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약속하시는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비로소 이방 땅을 떠나 처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곳에 도착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바로 ‘그 땅’에서 ‘기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땅 가나안에도 기근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지만, 인생을 살다보면 흉년과 기근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없는 가나안은 없다!”

우리가 꿈꾸는 것이 있죠.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고생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나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공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정착해 제단을 쌓은 곳이 ‘벧엘’입니다.

제가 벧엘에 가 보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결코 아니더군요. 해발 800m 높이에 위치한 그곳은 거의 ‘광야’에 가까운 땅입니다.

【*엠 클래식과 연주했던 장소 사진 그리고 연주 장면 영상】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버리고 떠나온 ‘하란’이 훨씬 더 비옥한 땅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이 ‘비옥한 가나안’이라면 남쪽이 아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따라 서쪽으로 옮겨갔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몇 년간 잘 살다가 기근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정착하자마자 기근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보세요.

10.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흥미롭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기근도 보통 기근이 아니라 ‘심한’ 기근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내가 네게 줄 가나안’ 땅이 절반이나 ‘광야’였던 것도 모자라 심한 기근까지 들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땅이 비옥한 땅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복을 주시는 땅은 기름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축복과 아브라함이 받고 싶어 하는 축복의 ‘괴리’ 속에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괴리 속에서 아브라함, 아니 성경을 대하는 모든 독자들이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았다는 것,

정착한 그 곳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했는데 25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는 것.

그리고 보니 가나안에서 지나는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그리 좋은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고난과 갈등의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음으로 시작된 가족사의 비극이 정리되며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지만, 곧 모리아 산에서 그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부당한 명령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이걸 흥미롭다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혹독한 고난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아들을 데리고 돌아와서는 사라에게 자초지종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가 죽습니다.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죽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온 사라의 삶이 참 기구했습니다. 남편을 따라 정착한 땅에서 당한 고난들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피난 갔을 때 강제로 바로의 아내가 될 뻔했던 일,
약속을 기다려도 아들을 주시지 않아 자신의 몸종을 통해 얻은 아들 이스마엘로 인해 겪어야 했던 갈등의 순간들,
그나마 기적같이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무지막지한 순종의 요구.

그런데 우리는 왜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의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끊임없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곳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의 내용은, 가나안 땅과 후손의 번성이었습니다.

명확한 사실 하나는 가나안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축복해 주시기 위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의 핵심으로 접근해 갑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을 축복은 무엇일까요?

축복의 출발점

사실 우리가 별로 주목하지 않고 지나가는 부분인데, 성경에서 사라를 소개하는 첫 번째 구절이 창세기 11장 30절에 나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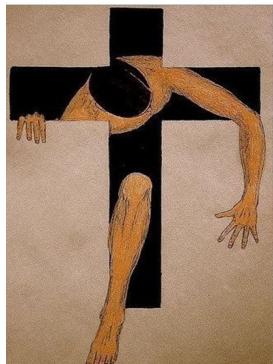
30.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단순히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례의 나이가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하니, 사례 역시 65세가 넘은 나이입니다. 아마도 하란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이 있었더라면 그곳을 떠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바로 이 구절이 앞으로 펼쳐질 아브라함의 축복 이야기에 깔려 있는
복선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주목해야하는 것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할 후손을 어떻게 주시는지 그 과정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정을 택하셔서 하늘의 별만큼, 바닷가의 모래알만큼 후손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지난 해 묵상 팀에서는 ‘광야’ 시리즈로 말씀을 준비하며 함께 광야를 묵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광야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의미 있는 사진을 몇 개 올려 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눅 7:13~14)

목사님의 설교문을 묵상하다 보니,
광야는 문이다. 좁은 문이다. 광야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러므로 광야는 닫힌 곳이 아니라,
열리게 될 문이다. 다만 지금 좁고,
힘든 것이 문제다.



‘우물’

광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샘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고, 새로운
샘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아래로 깊이 내려가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영성, 안셀름 그륀/마인라드
두프너, 72쪽)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의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왜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하신 후에 25년이나 더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가 겪는 고난을 봅니다. 그러나 혹시 25년이 훈련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더 훈련을 통해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아마도 25년이라는 시간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능성은 0%로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더 어떤 것도 작용할 수 없는 그 순간 말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을 다 동원해도 가능성이 없는 상태, 즉 ‘nothing’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진희 목사의 『광야를 살다』라는 책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얻을 당시 아브라함과 하갈은 둘 다 생산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둘이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낳은 아들이 아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하갈의 아들이다.”

성경에 보면 아들을 낳기 위해 기도한 다른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엘가나의 이야기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19. …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경우는 한나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사라는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어 생산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삭을 아들로 주신 것이죠. **창세기 21장 1-2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 사라가 임신하고 …

여기서 이진희 목사의 책 『광야를 살다』를 조금 더 인용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하갈의 아들이다.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도 사라의 아들도
아니다. 하나님이 낳게 해 주신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가나안 땅에서 만난 광야를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이르게 된 땅은 처음부터 ‘풍성함’과는 거리가 먼 장소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nothing’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광야의 시간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가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참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은, 마음껏 축복을 누리며 살던 고향 땅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장소에서 철저하게 천대받는 억울한 땅 애굽으로
보내셔서 총리를 만드셨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형통함’이란 풍요로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험했던 일들이었습니다.**

모세 역시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로 누군가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somebody’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nobody’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철저하게 ‘0’이 되었을 때, 부르심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만났던 광야의 시간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광야를 경험하게
하실 때는 ‘0’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사용하시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약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너무 강하고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고 기도하면 아들 이삭을 주시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몸종 하갈을 통해 후손을 보자는 아내 사라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기 1년 전 두 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실 때에야 비로소 믿게 되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보고 아들을 허락하셨다 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조금 부족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신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함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면 하나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더욱 귀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듯합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거나, 환경으로 인해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니 말입니다.

우리 신앙에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왜 광야가 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척박함이 소망과 기다림의 장소라고 생각하니 문제가 풀리는 듯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다 그렇습니다.

출애굽하며 희망에 들떠 있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40년 광야의 시간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를 지나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아주 극적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에 눈이 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치유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년 동안이나 바울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지나 바나바를 통해 사도로 불러낼 때까지 그에게도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지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기도에 중요한 것은 ‘더 기다리는 것’인 듯합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

/.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키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무어라 고백하나요?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비유가 될 듯합니다.

새벽 예배를 다녀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기도하려 들어가는 시간은 어두컴컴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나올 때는 날이 훤히 밝아 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환한 날을 만들고 계시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기 터널의 입구를 열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